

여수시 꿈뜨락몰에 청년몰 핵심포 오픈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 '비법 레시피·기술' 전수 청년틀까스 여수점 개점 "꿈뜨락몰 활성화 되길"

여수시가 여수 중앙시장 '꿈뜨락몰'에 청년몰 핵심포 양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틀까스 여수점이 지난 9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몰 핵심포 양성지원사업"은 청년몰 빈 점포를 활용해 유망세프와 협업으로 핵심포를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청년몰 중 여수를 비롯해 대전, 수원, 춘천, 평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창업 희망자를 모집해 총 4단계의 서바이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이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의

레시피와 기술을 전수받아 핵심포를 오픈하게 됐다.

청년몰 핵심포는 임대료 및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비용 등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날 오픈행사는 코로나19로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수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재단이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에드워드권 청년틀까스 여수점 입점을 축하하며, 핵심포



양성사업을 통해 꿈뜨락몰이 더욱 활기를 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꿈뜨락몰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와 공공요금, 홍보비

를 지원하는 '꿈뜨락몰 청년상인 붐업(Boom-up) 사업'과 함께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견인하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시가 그리는 동아시아 품은 생태문화도시 실현 위해 박차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의 문화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예술의 위기 극복과 제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 대한민국 대표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매년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하여 각국 공식 행사 및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한중일 공동발표에 따라 한국 순천시, 중국 소흥시·둔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3개국 4개 도시가 공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선포됐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적인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한중일 작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서예·전각 교류전 열림식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하이라이트인 개막행사는 오는 5월 14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문화의 에너지로 치유(治癒)와 재생(再生)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문화부 문화도시 지정 목표 달성 총력

문화도시 국가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5~10개의 도시를 지정하여 5년간 200억원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순천시는 2003년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기점으로 평생학습 도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생태·정원의 도시 브랜드를 확립해왔다.

2019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2년 동안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지정을 목표로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문화재 활용 제1의 도시 실현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

시다. 그동안 단순한 보수와 정적인 관람위주 문화재에서 벗어나 전통·근대 문화재,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생생(生生)문화재 정책과 역사자원 공원화 사업 등 기반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최근 순천 팔마비 보물(제2122호) 승격은 순천시민들이 팔마비에 깃든 청림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팔마정신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시는 순천향교 대성전(보물 제2101호),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등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대표축제로 인정받은 순천문화제 야행(8월, 10월), 팔마와 청림정신을 계승하는 팔마문화제(10월) 등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6월에는 순천만 습지가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으로 지난 2018년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유네스코 유산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순천형 문화예술 구현

순천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발맞춰 생활 속에서 문화를 꽃 피우고 시민 누구나에게 힘이 되는 순천형 문화예술을 구현한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만들어질 예술광장, 장안장작마당, 창작예술촌, 공연장, 창작소 등은 누구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공유공간 및 문화 콘텐츠 전시 공간 등 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문화 저변 확대의 마중물인 '항균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문화 예술 단체 및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작은 힘을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 활동가 발굴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영상위원회와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등으로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에 힘을 계획한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친환경 농업 육성 상반기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다양화·유기인증 확대 노력

고흥군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와 협력하여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농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유기인증 확대를 위한 필수 요건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부터 친환경(무농약, 유기

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친환경 인증기준과 신청서 작성요령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부터 인증을 취득하기까지의 인증 전반에 대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고흥군은 2020년 12월 기준 고흥군 친환경 인증 면적이 3,222ha(854농가)로 전체 경지면적의 13%에 해당되나 향후 20%이상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식량작물(수도작)을 비롯한 과수, 채소, 특작, 임산물분야 등 품목다양화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백영기자

보성 BS삼총사 이모터콘 16일 2차 무료 배포된다

'보성군청' 선착순 3만 5천명

지난해 품질대란을 일으켰던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터콘이 오는 16일 2차 배포된다.

이모터콘은 무료로 출시되며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성군청'을 검색한 후 채널추가를 해놓으면 16일 오후 2시부터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모터콘은 총 16종으로 3만 5천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사용기간은 4월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0일간이다.

이모터콘 출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BS삼총사'는 2020년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로 거듭났다.

지난해 말 보성군은 캐릭터 대상 수상 기념 감사 이벤트로 BS삼총사 이모터콘을 발매했으며, 배포 10분 만에 소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보성군청 관계자는 "1차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미처 받지 못한 분들에게서 재출시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2차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해왔다"면서 "최근에는 1차 이벤트에서 배포했던 이모터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서 2차 이벤트를 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지역학교 방문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광양제철고 학생 대상 전입 유도·지원혜택 홍보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내고장 광양애 주소갖기 운동을 적

극 전개하고 있다.

시는 4월 9일 금호동 주민센터와 함께 광양제철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행사를 갖고,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양시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등 각종 전입혜택 홍보와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전입 학생에게는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주소 유지 시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지역 내 학생 100원 버스 운영 등 혜택을 안내해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양=심종섭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